

금쪽같은 내 아이...골드키즈 시장 '후끈'

MZ세대 결혼 新풍속도

<5-完>“하나만 놓아 잘 기르자”

육아부담 가중 외동 선호...올해 첫째아 비중 역대 최대

명품 유모차 등 매출 신장...행동발달 문제 우려 목소리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다자녀보다 외동을 선호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뿐인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해 최고로 키우려는 '골드키즈(Gold Kid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명품 유모차, 아동복, 유기농 유아 식품 등 관련 시장도 성장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60.1%(13만8천300명)로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 51.9%였던 첫째아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21년 55.7%, 2022년 58.2%를 차지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2021년 35.5%, 2022년 33.7%, 2023년 32.3%로, 같은 기간 셋째아 이상은 8.8%, 8.1%, 7.5%로 감소했다.

이는 둘째를 낳지 않고 한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육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정 내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외동 자녀는 부모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됐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한국 아동복 시장 규모가 31% 늘어났으며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골드키즈를 위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백화점들은 명품 키즈 브랜드를 유치해 선보이는 등 관련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지역 백화점의 수입 아동복 매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광주신세계 수입 아동복 편집숍 리틀그라운드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신장했고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의 매출은 무려

300% 증가했다.

뷰티-아트체럼 클래스 디엘프렌즈는 최소 4만원의 체험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매월 100명을 웃도는 어린이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아동복의 경우 신상품 런칭시 소량만 입고 되는 데 이마저도 즉시 품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스토케 제품의 일부 모델은 수개월 대기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마트의 유아용 유기농 과일 매출도 오름세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마트 광주의 유기농 과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28% 올랐다.

6살 자녀를 양육 중인 오모(34·여)씨는 “한 명의 자녀를 가진 것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터 먹는 것, 입

는 것까지 둘째, 셋째를 낳았다면 할 수 없는 풍부한 지원을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7살 자녀를 가진 김모(36·여)씨는 “아이가 하나인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둘째를 낳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아이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 아이와 관련된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골드키즈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동 아이가 많아질 경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어지면 미래세대와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관계성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행동 발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솔기자

목포상의, 미래내일일경험 운영 기관 선정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참여기업 수당 지급

목포상공회의소는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미래내일일경험 지원 사업에

공모해 운영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인턴형) 지원 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의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로시티 명인의 솜씨와 정성으로 빚은
50년 전통 수제 약과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
지역 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김복녀약과 SINCE 1969

약과 세트			
1 약과 1호 100,000원 약과 110~120개 내외 / 고급 비단 상자, 황색 보자기	2 약과 3호 60,000원 약과 72~76개 내외 / 골지 상자, 소포장, 금색 보자기	3 약과 4호 40,000원 약과 42개 내외 / 골지 상자, 소포장, 금색 보자기	4 약과 5호 20,000원 약과 20개 내외 / 골지 상자
약과&정과 세트		정과 세트	쌀조청
1 약과정과 1호 120,000원 약과 110~120개 내외 + 정과 / 고급 비단 상자, 황색 보자기	2 약과정과 2호 85,000원 약과 62개 내외 + 정과 / 색이리 상자, 녹색 보자기	구절판 85,000원 도라지, 호두, 오렌지, 밤, 캐러멜, 감, 레몬 보자기	사과 30,000원 도라지, 호두, 오렌지, 밤, 캐러멜, 감, 레몬 보자기
우리밀약과 식혜 세트		우리밀 약과	
고씨네 다과 60,000원 약과 30개 내외 + 전통식혜 2,000ml / 소포장 포함		1 우리밀 약과정과 1호 140,000원 약과 110~120개 내외 + 정과 / 고급 비단 상자, 황색 보자기	2 우리밀 약과정과 2호 100,000원 약과 90~105개 내외 + 정과 / 황실송이버섯상자, 황색 보자기
3 우리밀 약과정과 3호 70,000원 약과 30개 + 정과 / 색이리 상자, 소포장, 소포장	4 우리밀 약과 1호 100,000원 약과 90~105개 내외 / 황실송이버섯상자, 황색 보자기	5 우리밀 약과[소] 45,000원 약과 30개 / 색이리 상자, 소포장, 소포장	
6 우리밀 약과 [소포장 소] 20,000원 약과 12개 / 종이상자	7 우리밀 약과 [소포장 대] 35,000원 약과 20개 / 종이상자	8 우리밀 약과 [미니] 15,000원 약과 10개 / 종이상자	

김복녀약과 SINCE 1969

주문전화 · 010-6630-4897
· 010-6472-1665

예금주 고수경 · 광주은행 169-121-099764
(김복녀약과) · 농협 352-1278-3818-03

* 5만원 이상 상품 주문시 배송비 무료 * 5만원 이하 상품 주문시 3천원 택배비가 추가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1일 5시간 근무, 8주 최대 32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과 멘토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된 참여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직무교육(40시간)을 받고 오는 30일 희망하는 기업에서 8주간 인턴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상의(061-242-8881·내선5번)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에는 HD현대삼호, 씨월드고속훼리(주), ㈜대창식품, MC에너지(주),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보원, ㈜보해양조, ㈜유일, ㈜목포해상캐



이블카, ㈜케이씨, 명도복지관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현택(사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시기에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공모한 52개 기관 중 32개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 이 중 19개 운영기관이 최종 선정돼 하반기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전통시장·공직자가 함께하는 상생장터 10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상생프로젝트 '추석맛이 장터'에서 직원들이 농산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날 상생장터에는 북구 관내 말바우·두암·운암시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북구청 제공>

광주은행, 추석 앞두고 다자녀가정과 전통시장 장보기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지역 내 다자녀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주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일조하고자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함께 장보기 체험 활동을 펼쳤으며, 차례상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고향일 광주은행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경기업체 및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싣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주은행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SG 리딩뱅크’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지역사회 환원 ▲지역인재 양성 ▲문화·예술·체육 후원 ▲기업가치 제고 등 핵심가치 확립을 통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반자로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재만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